**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실 하나하나를 엮어 생명줄을 만들다**

카일리 톰슨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격려해주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지표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견고한 기둥이었으며 뛰어난 선생님이었고 친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본받기로 했으나, 대학 등록금 비용 때문에 큰 공립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고, [스틸만 칼리지](https://stillman.edu/)로 옮겼습니다.

카일리의 고향인 앨러바마 주 터스칼루사에 자리잡은 스틸만 대학은 터스칼루사 제일 장로교회 목사인 찰스 앨런 스틸만 박사가 인도하던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18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오늘날 이 대학은 학문적 우수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십과 봉사에 대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강력한 전통을 유지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스틸만 대학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시아 워릭 박사는 "카일리가 스틸만 대학에 등록했을 때, 그녀는 소규모의 수업에서 가족같은 분위기를 느꼈고, 동료와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학위 공부를 하며 어려운 시간을 상담을 통해 이겨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카일리가 이 대학의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주던 분이었습니다"라고 카일리는 말했습니다. "학생 융자금 외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제 가족은 나가서 직장을 찾아 일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으며, 학비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학교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틸만 대학교는 소속 학생들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장벽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교수 중의 한 사람은 카일리가 장학금과 융자, 심지어 월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것보다 2년 늦게 졸업하긴 했지만, 카일리는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우수졸업생으로 말입니다. 또 스틸만 대학에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총장 펠로우십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틸만 대학교는 미국장로교와의 연대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는 역사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교육과 배움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는 교단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소수인종 공동체를 지원하는 장로교 산하 학교 및 대학교과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똑같이 배분됩니다.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한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및 공동체의 지도자들를 돕습니다.

카일리는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재정적인 어려움,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하지요.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그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인해 그 실들은 굵은 줄, 즉 재정 지원의 생명줄이 됩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보태도, 많은 것이 모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돕도록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두셨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또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